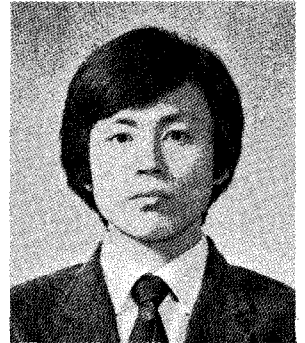


식량공급, 고용효과,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농촌 현실을 신중히 고려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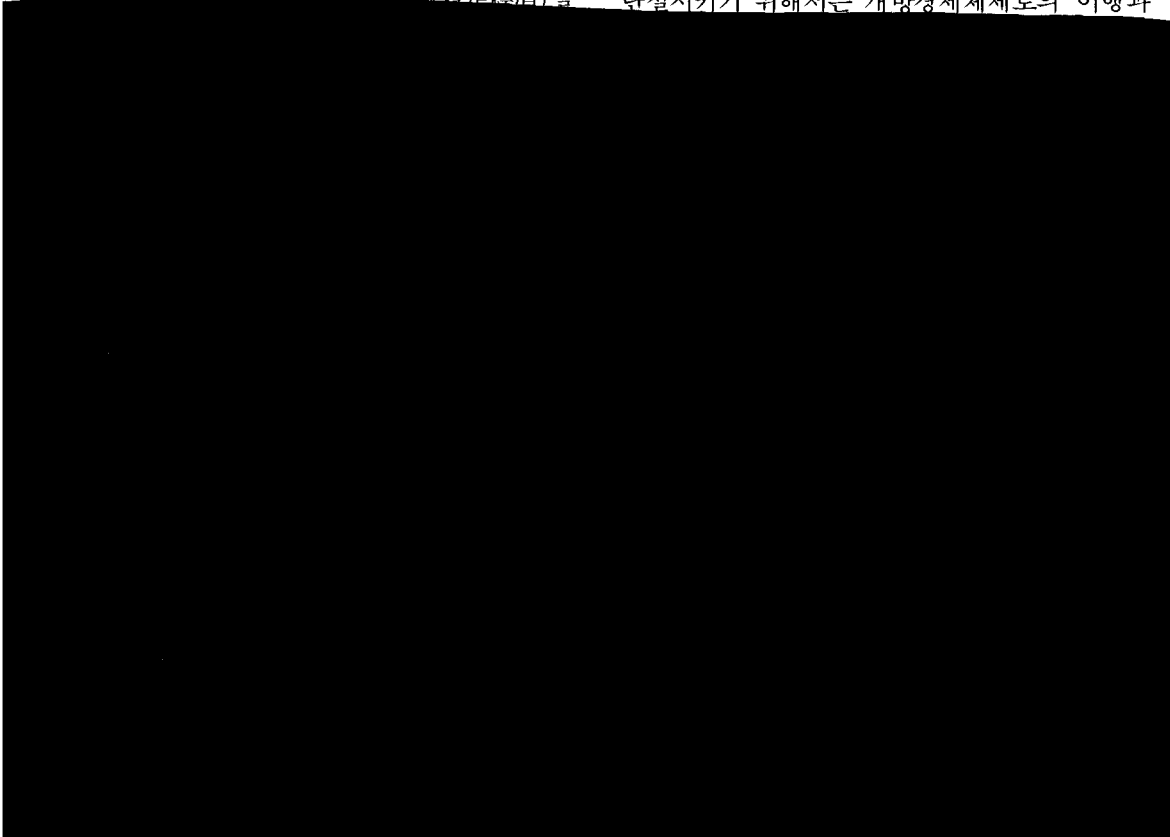
박 광 섭

(제일사료 기획실)
(서울대 농대 조)

I. 머리말

한 나라의 경제가 「로빈슨·크루소」
의 자급경제(自足經濟)의

제한조치를 경쟁적으로 취함으로써, 도리어 국
제무역이 급격히 감소하고 세계경제의 대공황
(大恐慌)을 초래하게되자 이러한 경제 악순환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과



자원을 비교우위산업에 전용케 함으로써 자원배분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소비자 생활수준의 향상. 소비자는 값싸고 품질좋은 상품을 공급받게됨으로써 생활이 윤택해질 것이다. 비누나 녹음기 등은 수입자유화 이후 품질과 가격이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대외거래를 자유화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교역이 확대되는 등 국내경제의 성장은 물론 국제경제 전체의 균형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같이 보이지만 이론과는 달리 자유화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비교우위의 특성산업에만 각국이 특화(特化)해야한다는 전통이론에 입각하면, 현실의 여건에 고착화된 산업이 장기적으로 세계수급구조의 변화가 올 경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다.

둘째, 전통적 이론은 교역조건의 변동을 통한 교역량조절에 의하여 국제수지가 균형된다고 하나 가격기능에 의한 완전한 국제수지의 조정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라 자유무역이 제약을 받게된다.

셋째, 개발도상국의 경우 취약한 산업구조와 낮은 기술구조에서 자본의 거래를 자유화 하면 외국의 직접투자가 대량 유입되어 산업질서를 혼란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상재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및 자본거래에 대한 자유화 추진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Ⅲ.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대한 재고(再考)

세계의 농산물 생산이 풍작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농산물 가격은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아의 선상에서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수입개방, 즉 자유화에 대한 기본이론은 앞서서도 잠깐 언급하였거니와 비교우위론에 기

인한다. 그렇다면 농업분야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있는 나라는 도대체 몇 나라나 되는가? 일본도, 중공도, 소련도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국가들도 농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나라들은 아니다.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다면 농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많은 나라들이 농업부문에 대하여 응분의 보호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결국 국민경제의 균형을 도모하고 그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디오피아의 국민들은 세계의 농산물생산이 풍작을 이루었고, 또한 많은 농산물이 잉여상태 - 세계경제라는 차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잉여인지는 의문 - 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에 직면해 있다.

기본생활수단인 의식주의 자급도를 높인다는 것은 순수한 경제원리를 넘어서서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사료업계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료와 축산물의 경우를 들어 수입개방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소박한 산술적 차원에서 사료용 원료를 수입하여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과 축산물을 직접 수입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양의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83년의 경우 사료용 원료를 수입하여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것이 축산물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보다 계란은 1.69배, 계육은 1.20배, 우유는 1.12배, 돈육은 1.73배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축산물의 종류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축산물을 직접 수입하는 것 보다는 그 금액으로 사료용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보다 많은 양의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합사료 산업의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배합사료 자체의 산업보다도 더 큰데, 1980 년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배합사료의 생산과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직접효과가 1 이라할 때, 타 산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686으로써 배합사료 1 단위의 생산은 총 2.686단위의 생산을 유발하게 된다.

●특집 / 나의 의견

우리나라는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제약조건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가능한한 자본은 절약적이면서 노동-즉, 고용효과 -은 사용적(使用的)이어야한다는 것이다.

축산의 자본효과는 공산품의 생산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도의 경우 축산물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총자본은 4.756단위이고, 광공업부문의 1단위 생산에 소요된 총자본은 5.336이었다. 즉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축산업에 투자함이 유리한 것이다.

또한 동연도의 축산업의 고용효과도 광공업부문의 고용효과보다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축산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0.7599로써 광공업부문의 0.1491에 비해 5.1배나 더 크게 나타나 있다. 고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농산물 수입을 자유화할 경우 농업취업자(약 400만명)는 비교우위산업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농업부문 취업자의 지적수준이 낮으므로, 새로운 직종에 투입전에 직업훈련이 필요하며, 직업훈련을 실시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는가가 의문시 된다. 또한 근래에 들어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유발계수가 광공업 부문에 비하여 5배나 되는 축산업부문의 종사자가 축산업을 포기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자와 직장이 필요하게되는데 이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들이 영위해야할 “삶의 질”적인 문제를 고려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1인당 곡물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축산물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축산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업분야 취업인구가 타분야에 전용되는 경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현실에 착안하여, 작목의 변화나 축산의 확대를 통한 복합영농으로써 농촌의 소득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최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보험시장 개방과 저작권,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 등의 지적소유권 그리고 물질특허보호요구에 이어 포도주와 쇠고기 수입개방도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이미 개방화에 성공한 몇몇 나라들도 알고 있으며, 농·축산물의 무조건적인 자급화 혹은 국산주의(國產主義)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원리를 넘어서는 식량차원, 타산업에 대한 생산과급효과, 자본효과 및 고용효과 그리고 농촌의 현실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볼때 아직은 자급가능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화를 거론함이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며,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개방화의 범위와 일정을 책임-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도록-있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웃끼리 나눈 온정 밝아오는 우리 사회

○휴지 한장줍는 마음, 맑아지는 우리 가슴

○새벽마다 드는 빗자루 하나, 온 세상이 밝아진다

〈양계협회 직장정화추진위원회〉